

##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의 비전과 발전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기본구상,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미 개발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가 실시되었고,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가 주도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창의적 도시개발기법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충남 도청이전 신 도시는 기존의 많은 신도시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도청이전 신 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건설하는 특별한 성격의 미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정책비전과 도시 성격에 걸 맞는 공간적 매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치중해야 한다.

첫째, 도청이전 신 도시는 지역의 정치, 행정 및 교류의 중심지인 충남의 수도(首都)로서 상징성과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에선 도시의 기능적 효율성, 편리성 및 쾌적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 수도의 건설에서는 실용적 도시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을 통합하는 기능까지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민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이끌어 내고, 주민 상호간 교류·협력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계획은 충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현대 도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도청이전 신 도시는 충남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업무중심의 신도시로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대부분의 신 도시는 주택문제 해결과 도시개발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 주거용 도시로 건설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 도시들이 도시개발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주변에 주로 건설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주거용 신 도시는 건설이전에 풍부한 수

요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 중심의 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도시의 개성이나 건설기술상의 경쟁력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는 기존의 수요 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개발수요를 스스로 창출해가면서 건설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이다.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충청남도는 이미 유수의 대학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투자 유치에 치중하여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요창출형 업무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적 매력과 함께 다른 신도시가 갖추지 못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셋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환경 명품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 도시 건설을 천명한 신도시들이 대부분 획일적인 아파트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녹지공간의 확대나 쾌적한 경관의 확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 건설과 관리과정에서 자원이용과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도시구조와 시설 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전체를 관통·순회하는 도보 및 자전거 전용도로망의 건설, 환경친화형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및 불필요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고밀도 복합용도 지구 개발, 그리고 에너지 및 물 자원의 절약을 위한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을 신도시 개발의 계획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청이전 신도시는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미래도시이다. 미래도시는 최첨단 정보·통신 및 각종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능형 도시를 의미한다. 미래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의료 및 여가기능이 첨단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과 결합하여 하나의 지능형 공간 시스템의 형태를 지닌다. 전통적인 도시기능의 공간적 분리와 분화 및 도시공간의 이용패턴이 변하면서 도시공간 구성 원리와 도시개발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첨단정보·통신 및 응용기술의 진전에 따른 미래도시의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이란 옛말이 있다. 모조록 도청이전 신도시가 충남의 얼굴을 그리는 마지막 점으로 비유될 만큼 200만 도민의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내길 기대한다.

\*충청투데이 3월 14일자 20면